

# 집 가진 신혼부부 4년새 최저...치솟는 집값에 멀어진 내 집 마련

부동산 시장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지난해 내 집값이 오른 신혼부부 비중이 최근 4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갓 결혼한 부부가 신집살림을 내 집에 마련하는 비중은 두드러지게 줄었고, 신혼부부 주택자산 가격도 3억원을 넘는 비중이 늘어 내 집을 마련에 큰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국내 신혼부부는 126만쌍으로 1년 전 132만2000쌍에 비해 4.7% 감소했다.

이들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 99만8000쌍 가운데 집을 가진 비중은 42.9%(42만8000쌍)로 전년 대비 0.5% 줄었다. 이는 전년도 43.8%(46만1000쌍) 보다 0.9%포인트(p) 줄었고, 2017년 43.6%, 2016년 43.1% 등 최근 4년 새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 중 자기 집을 보유한 부부는 29.9%로 전년

초혼부부 자가 비중 42.9%...2016년 이후 최저

내집 가진 1년차 부부 29.9%...전년비 2.6%p ↓

공시가 3억 초과 비중 늘어...집값 상승 영향

도 32.5%에 비해 2.6%p 줄었다. 2년차 37.3%, 3년차 43.0%, 4년차 48.5% 등 5년차 신혼부부(53.4%)를 제외한 모든 연차에서 전년도보다 자가 보유 비율이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를 부부 합산한 결과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36.6%)보다 소폭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비중은 17.5%로 전년(15.8%)보다 1.7%p, 6억원 초과는 6.0%로 전년(4.7%)보다 1.3% 각각 증가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39.8%로 전년(42.8%)보다 3.0%p 줄어든 반면, 3억

원 초과하는 구간은 23.5%로 전년보다 3.0%p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혼집을 가진 비중은 줄었지만 빚은 오히려 늘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5.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7%p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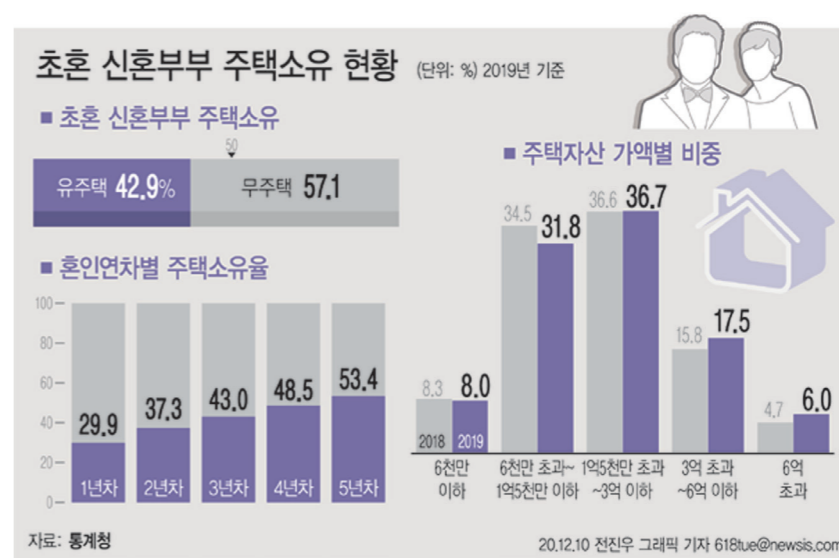
대출액 중앙값은 1억1200만원으로 전년(1억원) 대비 12.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억원~2억원 미만인 32.4%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1억4700만원)의 대출 잔액이 무주택 부부(8800만원)보다 약 1.7배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가 소유한 주택 53만

2000호 중 남편 또는 아내가 단독 소유한 비중은 76.8%로 이 가운데 남편(58.4%) 단독 명의 주택이 아내(18.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명의 비중은 15.3%로 전년에 비해 0.8%p 상승했으며,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결혼 1년차 부부의 공동명의 비중은 9.1%에 불과하지만 5년차에는 18.0%로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81.5%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신혼집으로 택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69.8%) 거주 비중이 월등히 높아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연차가 오래될수록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았으며, 단독주택에 신집살림을 차린 부부는 13.4%에 불과해 2015년 18.5%에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주택 소유에 따른 자녀 출산 현황을 보면 내 집을 가진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비중은 63.3%로 무주택 부부(53.2%)보다 높았다. 자녀수에 있어서도 집을 가진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0.79명)가 무주택 부부(0.65명)보다 많았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출산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진 탓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희기자

## ‘이색 맥주 컬래버’ 전성시대 왜...MZ세대가 즐기니까

MZ세대 이색적 경험 추구...재미·만족 위한 소비패턴 보여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올해 국내 주류 업계에서는 이색 컬래버레이션 제품 출시가 활발하다. MZ 세대는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자신의 만족과 재미를 위한 소비 패턴을 보인다.

1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다양한 제품 중 소비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품 중 하나는 대한제국의 밀가루 브랜드인 곰표 컬래버레이션 제품이다. 밀맥주 성공 이후 백곰은 티셔츠, 연승장, 매보지, 스티커, 에코백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곰표 캐릭터를 사용한 맥주, 팝콘, 화장품 등 내놓는 제품마다 MZ세대에게는 핵인싸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장년층 세대에서는 추억을 상기시

키는 아이টে이션으로 떠올랐다. 곰표 이후 편의점 CU는 말표산업, 맥주 제조사 스퀴즈브루어리와 손잡고 구두약 맥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말표 흑맥주 패키지는 까만 바탕에 말표산업 고유의 폰트로 표현된 로고와 BI 컬러 등 말표 구두약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그대로 오마주했다. 심볼 캐릭터인 프세발스키 야생말이 보리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재미를 더했다.

곰표 밀맥주가 밀가루에서 모티브를 얻어 고소한 밀향을 강조한 담백한 맛의 맥주라면 말표 맥주는 진한 맛과 향을 강조한 흑맥주로 기획됐다.

곰표와 말표의 성공 이후 국내 주류 시장에서 이색 협업을 통한 맥주 출시는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석이 됐다.

세븐일레븐은 더세븐라이트브루잉과 함께 국내 골뱅이 가공 1등 브랜드인 유동골뱅이와 협업한 프리미엄 수제 맥주 ‘유동골뱅이맥주’를 출시했다. 유동골뱅이맥주는 맥주와 잘 어울리는 푸드패어링 콘셉트로 개발된 상품이다. 매운맛과 잘 어울리는 달고 고소한 맛을 강조했다.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는 누적 조회수 30여부의 네이버웹툰 인기작 ‘유미의 세포들’과 협업한 ‘유미의 위트 에일’을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유미의 위트 에일은 웹툰의 캐릭터인 ‘유미’가 좋아하는 것들을 캔맥주 디자인에 삽입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알코올 도수도 5.2%로 낮아 혼술족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제주맥주는 현대카드와 손잡고 ‘선문대 할망 신’ 설화라는 독특한 스토리를 입힌 아워에일을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선문대 할망 신 설화는 제주도 창제에 관한 이야기로 창조신인 선문대 할망이 차마 속에 흙을 담아 제주도의 한라산과 각종 오름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다뤘다.

아워에일 패키지는 파랑(바다), 초록(오름), 빨강(해)색을 활용해 바다와 흙으로 맥주를 빚는 할망신의 익살스런 모습이 디자인됐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제 맥주는 일반 맥주와는 달리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다는 장점을 경쟁력 삼아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 소상공인 긴급대출 하루만에 마감

“3천억 준비했는데 4천억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행 하루만에 마감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날 접수 받은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에 2만2000건의 접수가 몰렸다. 대출 신청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

전날 중소기업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설해 접수를 받았다.

이번 긴급 지원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전

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연되는 ‘신청순’으로 대출이 지급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연내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 할상환)이다.

대출은 시작되자마자 수만명의 접속자가 몰렸다. 접수 시작 30분만에 15만여명의 접속자가 몰리면서 소진공 서버가 다운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2만200명이 4000억원어치 대출을 신청했다.

총 예산이 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최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반영한 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 기아차 쏬렌토,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서 최고 등급 받아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 달성하며 탁월한 안전성 인정

기아차 쏬렌토가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로부터 안전성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아차는 지난 9월부터 유럽 권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한 쏬렌토가 9일(현지시간)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쏘렌토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네 가지 평가 부문의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탁월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유로 NCAP은 쏬렌토가 측면 장애물 테스트에서 탑승객의 신체를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충돌이 있을 경우 승객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쏘렌토는 어린이 탑승자 보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트·헤드레스트 테스트에서도 후방 충돌에서 우수한 승객 보호 성능을 입증했다. 또 안전 보조 시스템 부문에서 기본 장착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아차는 “쏘렌토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차체를 경량화하면서도 다중 골격 구조 설계로 안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쏘렌토는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충돌 이후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차량을 제동해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과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등 총 7개의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 충돌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쏘렌토는 최근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카바이어 주관 ‘2021 카바이어 어워드 올해의 차·최우수 대형 패밀리카’ 등 2개 부문 동시 석권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브·일간지 빌트 주관 ‘골드 스티어링 휠 2020 대형 SUV 부문 올해의 차’ 수상 ▲독일 4륜구동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티 빌트 올라드 주관 ‘2020 올해의 4륜구동 자동차 어워드 디자인 부문’ 수상 등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최이슬기자

## 0%대 저물가라지만...코로나 이후 지표·체감물가 격차 확대

“소비지출구조 변화 반영 체감물가 상승률 0.2~0.6%p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상승률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물가만 보면 소비지출가상률이 0%대로 저물가가 맞는데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0월)’에 따르면 한은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반영해 물가상승률을 추정할 결과 체감물가 상승률이 지표물가 상승률을 0.2~0.6%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료품과 보건, 주거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음식·숙박, 여행·항공 등 대면

서비스 관련 지출은 큰 폭 감소했다. 한은이 이러한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반영해 소비지출가치주의 지출 목적별 가중치를 조정해보니 실제 지출비중이 높아진 식료품, 보건, 주거, 통신 등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교육 등의 가중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6월을 기준으로 가중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료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음식·숙박(-0.1%포인트), 오락·문화(-0.8%포인트) 등은 대체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소비지출구조 변화를 감안한 전체 지표물가와 체감

물가 상승률간 격차는 지난해 12월 0.15%포인트에서 올해 3월 0.16%포인트로 벌어진 뒤 5월 0.5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9월에도 0.46%포인트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0.70%포인트)과 스위스(0.67%포인트), 캐나다(0.3%포인트) 등 주요국에서도 체감물가 상승률이 지표물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지출가상률이 0%대로 떨어졌음에도 일반인의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낸 것도 체감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동취재본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거치기간 3년→5년 연장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대출 거치기간이 2년 연장된다. 아직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천 대출액도 신청만 하면 연기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된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즉시 신청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농가들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 거치 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출액은 총 312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거치 기간 중이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연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선 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능한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병해충’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라는 조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었다. 세부 지원 요건은 ‘병해충 피해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명시했다. 최이슬기자